

수건과 화환  
22.01.17  
텍스트 뷔페 결과 보고

---

안녕하세요,

오늘까지 텍스트 뷔페의 한 달간 전시가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13 분(팀)의 작가님들과 임현영 기획자님이 기획 초반부터 개념을 함께 잡아가고 새로운 전시를 구상하게 되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평을 해주는 전시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기간 중에도 직접 방문해주시고, 전시장 상주나 지인들 초대를 통해 이번 전시를 챙겨 주셨던 점 감사드립니다.

작가님들께 약속드린 대로, 수익을 공개하고 등분하기 위해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유합니다 (이 보고서는 수건과 화환 홈페이지에서도 공개될 예정입니다). ‘정산 보고서’ 라고 볼 수도 있고, ‘독립-공간의 운영 지표’ 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대략 한 달간 외부의 후원없이 진행된 기획 전시의 가능성을 알리고, 자립적인 수익구조를 함께 고민하기 위해 공유하는 바입니다. 비록 적은 액수일지 몰라도, 예술을 지속하기 위해 없는 생계를 위한 생활비까지 쪼개어 쓰는 작가들의 현실을 기획자, 작가, 관객과 함께 고민되어지길 희망합니다.

.  
.  
.

전시 : TEXT BUFFET 텍스트 뷔페

전시 기간 : 2021.12.07 ~ 22.01.17 (35일 85회차 운영)

\*12월 (20일 46회), 1월 (15일 39회)

운영자 : 수건과 화환

.  
.  
.

1. 참여 관객
  2. 정산
  3. 최종 정리
-

# 1. 참여 관람객

## A. 전시 관람자

\*전시 첫 주(21.12.7~14)는 DOODLE(doodle.com) 예약 시스템으로, 그 이후 전시 종료일(~22.01.17)까지는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로 진행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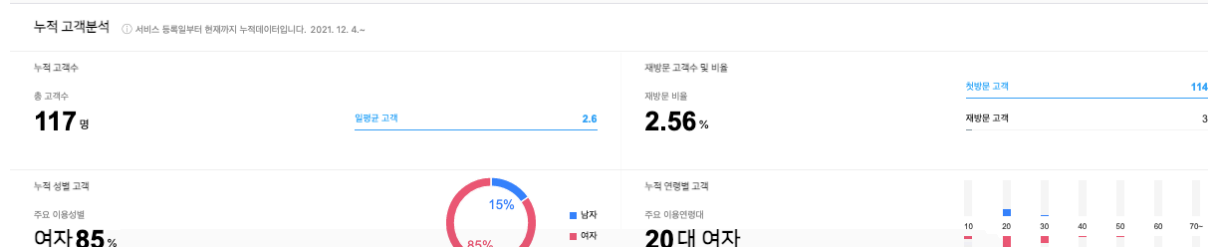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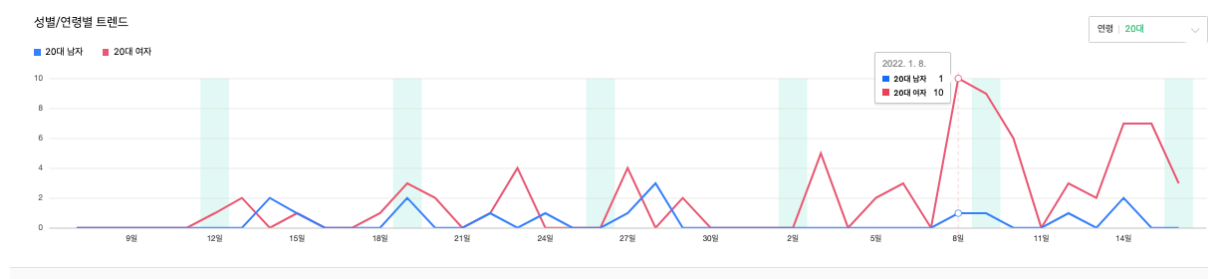
집계된 실 예약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관람객	예약 사이트
<p>작가, 지인(대략 추정), 두들 예약자</p>	<p><u>36 명</u> (<u>두들-관람객 22 명</u>)</p>	
<p><u>네이버 전시 예약</u></p>	<p><u>153 명</u> (<u>이용 완료자</u>)</p>	
<p>36(작가, 지인-대략 추정, 두들 예약자) +153(네이버 전시 예약)</p> <hr/> <p style="text-align: right;"><b>= 189 명</b></p>		

## B. 관람객 예약 지표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 통계자료 참고)



\*전시가 시작되는 시기와 코로나 오미크론 확진이 맞물리며 예약취소자가 초반에 부득이하게 많았습니다. 전시 마지막 주에는 전시 연장 및 추가 예약 관련 문의가 많아 연장을 고민했으나, 전시를 지속하는데 체력적, 물리적인 한계가 있어 전시 마감으로 답변 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통계자료나 분석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네이버 통계 페이지' 공유해드리겠습니다.

## 2. 정산

### A. 순매출

\*초반 운영 단계에 실수로 인한 환불(8 건)은 정산에서 제외했습니다.

\*\*세금 처리는 정산에서 제외하고 계산되었습니다.

순매출 <sup>?</sup>	전체	페이
<b>1,595,000</b> 원		
이전기간대비 <b>+1,595,000</b>		
전체 매출		2,130,000원
취소/노쇼		-600,000원
취소수수료		+65,000원

$$\begin{aligned} & \text{매출 합 (원):} \\ & + 90,000 \text{ (현금)} \\ & + 1,530,000 \text{ (네이버 전시예약)} \\ & - 30,600 \text{ (네이버 수수료 (2.0\%))} \\ & + 65,000 \text{ (취소수수료)} \end{aligned}$$

**=1,654,400 원**

### B. 인쇄 비용

#### a. 인쇄

\* 텍스트 뷔페의 작가님들의 총 원고 수는 72부이고, 대략 어림잡아 원고 한 부당 6~70 부 출력하였습니다. 평균 원고가 [양면 한 장]이라고 가정한다면, 어림잡아 4320~5040 장의 양면을 출력하였습니다.

\*\* 비교적 적은 물량에 비해 다양한 출력 작업이었기에 소규모 인쇄소를 찾을 수밖에 없었고, 1,2 차 전체 인쇄는 <우진인쇄소>에서 출력을 하고, 영업시간이나 사정에 따라 무인 인쇄소나 문구점 인쇄소를 이용했습니다.

\*\*\*전시 막바지에 관람객 수가 늘어나, 폐기되는 원고를 줄이기 위해 필요 원고만 부분 인쇄하였습니다.

b. 인쇄소

(장 당: 원)

인쇄소	<u>우진인쇄소</u>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272-1)	<u>알파문구 남영역점</u>
종이 구매비용	X	2,200~2,600 (한 묶음 당 15~20 장)
A4	흑백: 50~100 칼라: 200~300	흑백: 100 칼라: 500
A3	흑백: 200	X
기타 규격 (B5, A4 100/120/150/180g)	A4 출력 값과 동일	

c. 인쇄 비용

(원)

일자	구분	출력 비용	추가 비용
<u>12/06(월)</u>	1 차 인쇄	210,000	18,000(종이)
<u>12/20(월)</u>	2 차 인쇄	115,000	8,800(종이)
<u>1/6(목)</u>	부분 인쇄	60,900	9,000(봉투)
<u>1/8(토)</u>	부분 인쇄	42,000	8,800(종이)
<u>1/10(월)</u>	부분 인쇄	39,000	4,000(봉투)
<u>1/14(금)</u>	부분 인쇄	27,000	
<u>1/15(토)</u>	부분 인쇄	31,000	6,000(봉투)
<u>1/17(월)</u>	부분 인쇄	14,000	
		=538,900	=54,600
<b>총 합 : 593,500 원</b>			

B-1. 전시 비용 (정산 미포함)

\*전시 비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바랍니다. 공간 비용(월세)과 인건비를 제외한 이번 전시 설치 비용을 계산하였고, 모든 비용은 수건과 화환에서 부담하였습니다.

\*\*지속 가능한 전시공간으로써 전시 가벽을 텍스트 뷔페 책상으로 제작했고, 기존의 조명 및 물품들을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원)

전시 설치 비용	목재	5,000(한치각 3m)x4 10,000(방한판넬)x2 12,000(48, 3T)x1
	철물점	30,000(기타 공구류/부속품)
	페인트	33,000
	조명	3,000(전구)
	청소 도구류	9,000(마대) 2,000(물티슈)x2
집기류	의자 3 종	20,900(바의자)x2 12,000(발거치대)x4 19,000(스툴)x4
	트레이	18,000
	Stationary	8,900(친환경스테이플러) 200(연필)x6 1,000(명함아크릴대)x13
	아카이브 보관함	18,000
	방역품	5,000(스프레이형) 3,000(손소독제) 1,000(트레이용소독수건)
	차/간식류	22,000(둥글레차 x3, 하리보 x25, 말랑카우 x1)
	긴급 인쇄용 인쇄기	74,900(잉크젯복합기) 15,000(잉크(검정 3)
	총 합: 476,800 원	

### C. 최종 금액/등분

A (입장료) 1,654,400 원

B (인쇄비용) 593,500 원

순매출

$$A - B = 1,060,900 \text{ 원}$$

작가 1 분께 돌아가는 금액

$$1,060,900 / 13 = 81,600 \text{ 원}$$

### 3. 최종 정리

작가님들에게 돌아가는 비용은 한 분/팀 당 81,600 원으로 계산되었습니다. 몇몇 분께서는 얼마 되지 않는 액수일 텐데, 오히려 참여 작가들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거나 기념적인 무언가를 제작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전시 수익을 분배한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처음 기획 의도에 맞게 등분된 금액을 드리려고 합니다.

수건과 화환은 예술 작가가 더 나은 예술 사회와 인식 속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새로운 수익 구조와 특화된 플랫폼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 가능성을 경험했지만, 앞으로의 전시를 통해 실현하기까지 더 꼼꼼한 구상과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모두 언급하기 힘들지만, 여러 기획자, 작가, 예술분야 관련 직종 관람객들에게서 다음 프로그램의 참여 의사와 긍정적인 피드백들을 주셨습니다. 원고의 수, 텍스트의 주제, 수집 방식, 아카이브의 교환에 정확한 설명과 의의 등에 대한 보안이나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피드백이었고, 이를 바탕으로 다음 텍스트 뷔페에서는 더 기발하고, 깊이 있는 구성을 기획해보려 합니다.

비록 이번 텍스트 뷔페의 포맷을 처음 시작하게 되어 좌절되는 부분도 많았지만, 임현영 기획자님과 작가님 한 분 한 분마다 개인적인 바쁜 일정 중에서 참여해주셨기에 그만큼 책임감을 느끼며 진행을 했습니다. 작가님들의 앞으로 행보에 좋은 영향들로 이어질 수 있기를 희망하며 이번 기회를 통해 자주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기존에 수건과 화환에 관심을 가지고 방문해 주셨던 작가님들, 개별적으로 뵙지는 못했지만 매일 보는 원고들로 내심 친근하게 느껴지는 작가님들 모두 이번 텍스트 뷔페를 함께할 수 있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2.01.17  
수건과 화환 운영자  
이예현 드림

---

수건과 화환

[www.wreath-and-towel.org](http://www.wreath-and-towel.org)